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제2차 교학 정기회의



회의 일시

2025.05.28.(수) 13:30~14:30 / 15:00~16:00
2025.05.30.(금) 13:15~14:30 / 14:30~15:30

회의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 기념관

참여자

제57대 총학생회 S:CATCH 학사정책국, 총학생회장단,
학생성공센터, 교원인사팀, 교무팀, 외국인유학생지원팀

논의 안건 1. 비교과 홈페이지 개선

총학생회: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 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 차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학생성공센터

총학생회: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한 한 방안으로 챌린지스퀘어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챌린지스퀘어 홈페이지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제한적임. 기능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보 제공이 부족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몰라 활용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홈페이지 상단에 다양한 탭이 존재하지만 직관성이 떨어져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쉽게 찾기 어렵고,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챌린지스퀘어 외부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음.

학생 의견 조사 결과, 3품 취득 및 졸업 요건 관리, 학우들과의 성취도 비교 기능, 주별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잡한 기능 구조로 인한 불편함도 크게 지적되었음. 종합적으로, 챌린지스퀘어 홈페이지는 기능 정비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사용 방법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챌린지스퀘어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음.

타 대학 비교과 홈페이지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 학생 친화적인 구조와 직관적인 디자인, 상세 검색 기능, 참여 후기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었음.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챌린지스퀘어 홈페이지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이 학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제안하는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기능 대분류 정비: 비교과 프로그램, 나의 역량 확인, 취업 지원, 3품 인증, 상담 신청,

외국인 유학생 등 6개 항목으로 주요 기능을 대분류하여 구조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을 높임.

메인 페이지 구성 개선: 모든 기능을 나열하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대분류만 크게 표시하고, 클릭 시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임.

세부 기능 보완: 키워드 검색, 상세 검색, 상담 페이지 디자인 개선, 참여 후기 제공 등 학생 친화적인 기능을 강화.

해당 개선 제안은 과거 학생성공센터에도 전달된 바 있으며, 홈페이지가 외주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제안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와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학교 본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였음. 학교 측에서는 총학생회가 직관적이라고 평가한 타교 사례와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비교한 결과, 오히려 우리 학교 홈페이지가 더 직관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직관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총학생회의 보다 명확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추가로 제시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총학생회: 우선, 챌린지스퀘어 내 기능이 학교 내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어 있어, 학생들이 어떤 기능을 어디서 이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챌린지스퀘어 내에서도 '장학'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GLS '장학 영역'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장학금 신청은 GLS에서만 가능하고, 챌린지스퀘어에서는 일부 정보만 제공되어, 특정 기능을 어디에서 이용해야 하는지 이용 경로가 혼란스러움. 따라서 챌린지스퀘어 대분류 정비를 통해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내 여러 사이트와 챌린지스퀘어 간의 역할 및 성격을 보다 확실하게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학교 본부: 챌린지스퀘어는 교과 외 학생 역량 개발을 위한 비교과 중심 플랫폼으로 기획되었음. 초기에는 부서별로 메뉴를 구성했으나, 현재 메뉴가 다소 방대한 것은 사실임. 총학생회에서 제기한 대분류 정비 및 GLS와 챌린지스퀘어 간 명확한 기능 구분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분이 명확해질 경우 학생들의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향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구분 방안 및 기술적·행정적 개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음.

총학생회: 메인 페이지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챌린지스퀘어 메인 페이지는 스크롤을 길

게 내려야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다양한 기능을 한 화면에 보여주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어렵고, 홈 화면에 배치된 주요 정보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따라, 간결하고 압축된 형태로 구성된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또한, 현재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비교과 프로그램 캘린더 및 취업 활동에는 이미 마감된 프로그램이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신청 기한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정렬하는 식의 개선이 필요해보임.

학교 본부: 기존 챌린지스퀘어 메인 화면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려는 의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을 검토할 예정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구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총학생회 측의 보다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함.

향후 개선안이 구체화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재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총학생회: 세부 기능과 관련해서는, 키워드 검색 기능이 사용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프로그램이 바로 검색되는 방식이 직관적이고 편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참여 후기 조회나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여러 사이트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현재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해 SSG 게이트웨이나 학생성공가이드같은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가 학생들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타교 사례처럼 한 화면 내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바로 확인하거나, 최소한의 클릭과 스크롤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들을 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사이트와 정보를 통합하고, 챌린지스퀘어 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간편한 구조를 마련해야 함.

결론: 총학생회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여름방학 중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함.

논의 안건 2. 전임 교원 확충

총학생회: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 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 차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교원인사팀

총학생회: 총학생회 측에서 올해 초 진행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자유 의견으로 전임교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견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최근 ‘Learning Plus+’ 전공과목 T/O 확대 사업을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과 학생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업 T/O 부족 문제에 대한 학생 수요를 학과에 전달하고자 했으나, 일부 학과에서는 T/O 부족의 근본 원인이 전임교원 수 부족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전임교원 확충이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별도로 진행한 제2차 교학 정기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글로벌리더학부 등에서 전임교원이 부족하다는 자유응답이 있었음. 대학알리미 2024학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전임교원 수와 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 비율을 산출해 연세대, 고려대와 본교를 비교한 결과, 일부 학과의 전임교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전임교원 확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함.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함.

학교 본부: 우선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현재 교원 채용을 위한 적정 예산은 배정되어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 전임교원 채용은 상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1학기에도 60명 가까운 채용 공고가 나갔고, 현재도 적극적으로 채용이 진행 중임. 사회학과, 문헌정보학과,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등 총학생회 측에서 언급한 학과들 역시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

다만, 전임교원 채용은 단순히 수요에 따라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문적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하기에 검증 절차가 엄격함. 특히 일부 전공의 경우, 산업계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산업체와 학교 간 연봉 격차가 커지면서 학교 측이 원하는 인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일부 학과의 교원 충원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학교 측은 전임교원 채용과 함께 대규모 강의, 모듈형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임. 전임교원 채용은 단순히 수강 수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학과의 중장기적 비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충원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임.

다만, 학교 측에서도 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 수를 고려하여 계속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채용 T/O 배정 시 참고하여 반영하겠음.

총학생회: 최근 신설되는 학과들과 관련해, 기존 학과의 교수 인력이 신설 학과와 공유되면서 기존 학과 학생들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신설 학과 개설에 따른 교수 인력 배분 문제와 학교 측의 대처에 방안에 대해 질의함.

학교 본부: 신설 학과 개설에 따른 교수 인력은 신설 학과에서 필요한 교수 수요를 기존 학과 교수 충원에 반영하여 함께 확충하고 있음. 단과대학 사정에 따라 어떤 교수가 어떤 학과의 수업을 맡을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신설 학과 개설 및 신설 학과 학생 수에 맞추어 교수 인원은 지속적으로 확충 중인 상황임.

총학생회: 전공 내에서도 교수마다 연구 분야가 다양한데, 최근 수요가 커지는 최신 산업 분야 관련 강의를 많이 개설되지 않아 학생들의 선택 폭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소규모 학과의 경우 교수진의 연구 분야가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전임교원 채용 시 연구 분야를 어떤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함.

학교 본부: 전임교원 초빙 시에는 해당 학과 및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 수요를 고려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음. 단순히 기존에 있던 교원의 빈자리를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 에너지, 환경 등 향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있음.

다만, 신규 교원을 초빙하더라도 관련 과목 개설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존 교육과정에 새로운 과목을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에 대해 교수들과 학과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유인책을 마련해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교원에게 과목 차감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는 학생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관련 과목 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교원인사팀은 채용 시 신흥 분야, 복수전공, 학과의 실제 수강 인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전임교원을 선발하고 있음. 전임교원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는 faculty.skku.edu를 통해 확인 가능함.

결론: 학교 본부는 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 수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채용 T/O 배정 시 참고하여 반영할 예정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총학생회에서 의견을 취합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함.

논의 안건 3. 계절학기 과목 개설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교무팀

총학생회: 총학생회 측은 전공 과목 T/O 확대사업 Learning plus+를 진행하던 중 전공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뿐 아니라, DS 과목의 추가 개설을 요구하는 내용을 다수 확인함.

과거 도전학기에는 DS 과목이 다수 개설되었으나, 최근 도전학기의 취지에 맞춰 DS 과목 개설이 제한되면서, 졸업을 위해 DS 과목 이수가 필요한 24학번 이상 재학생들에게 불편이 예상됨. DS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음에도, 2025년도 여름 계절수업에 개설된 DS 과목에는 ‘문제해결과알고리즘’ 두 개의 분반만이 존재. 이에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DS 과목 이수가 필수적인 24학번 이상 학생들을 위해 계절수업에 DS 과목을 더 확대하여 개설해주길 바람.

또한, 현행 계절수업 수요조사 문항 방식이 전공 과목 선택 시 세부 과목명을 직접 기재할 수 없고, 단순히 전공 일반/심화만 선택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구체적 수요 전달이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됨. 이에 학생들의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과목의 분류가 아닌 정확한 ‘과목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문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학교 본부: 계절수업 과목 개설과 관련해, 계절수업은 단기 과정에 적합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올해 계절수업에 DS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교과목 교강사가 계절 수업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실제로 2024-겨울 계절수업에는 학생 수요를 고려해 ‘AI기초와활용’ 과 ‘데이터분석기초’ 과목을 파일럿 형태로 개설했으나, 교강사들이 3주 수업으로는 학습 목표 도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향후 계절수업에서는 해당 과목들을 개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함. 현재 ‘문제해결과알고리즘’ 외의 개설된 DS 과목은 소재부품융합공학과’ 전용 분반이며, 해당 분반의 경우 8주간 운영됨.

계절수업 수요조사 시스템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은 과거부터 사용해오던 방식을 유지해온 것으로, 기존 방식에 대한 별다른 불편 제기가 없었던 탓에 현재까지 유지되어왔음.

다만, 현재 전공 핵심/일반 등 포괄적인 분류만으로는 학과에서도 정확한 수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당 부분 개선될 경우 학생 수요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학기 강의 개설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총학생회의 제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타 학교 사례 등 과목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총학생회: 계절수업과 관련해, 현재 일부 전공 과목 및 DS 과목이 계절수업 3주 기간 내에 개설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측에 계절수업 기간 연장에 대한 내부 검토 여부를 질의함. 계절수업 기간이 연장된다면, 전공 과목과 같이 학습량이 많은 다양한 과목 개설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학교 본부: 현재 ‘계절학기’가 아닌 ‘계절수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계절수업은 학기가 아님. 계절수업의 기간이 늘어나 학기처럼 운영될 경우, 이는 ‘집중학기’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재 학부에서 집중학기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소재부품융합공학과(8주 과정)가 유일함. 해당 학과는 재직자 전형으로, 빠른 과정을 위해 특수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금 또한 정규 학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됨.

계절수업 기간을 현행 3주로 유지하는 이유는 졸업 사정 및 학사 행정 절차 때문임. 계절수업 종료 후 성적 확정 및 이의 신청 처리, 졸업 사정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고려할 때,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졸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3주 기간이 학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구조이며, 계절수업은 기본적으로 정규학기를 보완하는 성격이므로, 정규학기 수장이 원칙임.

결론: 학교 본부는 총학생회에서 제안한 계절수업 수요조사 방식 개선(과목명을 직접 기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타 대학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논의 안건 4. 외국인 유학생 복지 강화

총학생회: 자연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외국인유학생지원팀

총학생회: 총학생회 측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 진행 중 최근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다방면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함. 또한 2025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에 따라 실시되었던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응답 결과 등록금이 높은 데 반해 유학생 복지 혜택은 부족한 상황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 느껴진다는 응답자들의 자유 의견을 확인함. 이에 외국인 유학생 복지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함.

1) 외국인 장학금 확대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 수혜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만 존재하는 상황임. TOPIK 장학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입학 첫 학기에만 지급되어 재학 중에는 추가 수혜가 어려운 구조임.

타교의 경우 가계곤란 유학생 대상 장학금 및 재학 중 수혜 가능한 TOPIK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음. 본교 또한 저소득층 유학생 장학금 신설 및 한국어우수인재장학금 TOPIK 6급 취득에 한하여 재학 중에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람.

2)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체험 활동 활성화

제2차 교학 정기회의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와 내국인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 확대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현재까지 본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수와 운영 방식 모두 타교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타교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 주관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교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생 주도 행사에 학교가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음. 학교 주관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제한적인 상황임.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학교 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를 바랍. 또한,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기획 또한 제안함.

3)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지원 복지 확대

제2차 교학 정기회의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하게 공평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됨.

현재 본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성균관대학교 진학 및 진로 설명회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음. 특히, 진로 설명회도 특정 기업의 채용 설명에 국한되어 있어, 개별 유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타교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특강, 1대1 대면 취업 컨설팅,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 지원 부스 운영 등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이 본교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단순한 채용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개별 유학생의 상황에 맞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의 특수한 채용 문화를 고려해 기업 소개, 직무 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비 등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취업 시장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4)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 프로그램 홍보 확대 및 집단상담 정기 진행

본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OISS 홈페이지에는 카운슬링센터 이용 안내가 게시되어 있으나, 상담 관련 정보는 여러 지원 정보 중 일부로만 포함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아보기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 프로그램 공지도 OISS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어렵고, 카운슬링센터 홈페이지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과 홍보가 부족한 상황임. 외국인 유학생들은 타국 생활에서 겪는 소외감, 차별, 문화적 스트레스 등으로 상담 지원이 더욱 절실할 수 있음에도, 상담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 아쉬움. 또한, 카운슬링센터에서 매달 다양한 주제로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중국인 유학생 대상 외에 전체 외국인 유학생을 포괄하는 영어 진행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총학생회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 프로그램 확대, 영어로 진행되는 정기

집단상담 신설, OISS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 홍보 강화를 제안함.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학교생활 적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학교 본부: 우선, 현재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수준이 이미 경쟁 대학 대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지양하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 장학 예산은 신입학 장학금과 재학생 성적 장학금을 단일 예산 안에서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신입학 장학금에 무게를 두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성적우수장학금은 외국인 유학생끼리 경쟁하는 방식으로, 현재 외국인 유학생 재학생의 약 3명 중 1명(30%)이 성적 장학금을 수혜받고 있으며, 이는 타 대학에 비해 높은 수치임. 학교 측은 외국인 유학생 재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통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장학 제도는 현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재학생들의 학업 장려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이며, 장학 예산이 확대될 경우 가계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마련을 검토하겠음.

추가로, 본교는 2025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저소득층 장학금의 일환으로 ‘SKKU 글로벌 리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을 선발해 8학기 동안 등록금 50%를 지원하는 형태임. 이와 함께, 정부 초청 장학생(GKS) 제도를 통해 가계곤란 학생들의 유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 예산으로 기숙사 지원금 등을 추가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총학생회: 학교의 기조와 노력을 이해하나, 재학 중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할 재학 중 수혜받을 수 있는 별도 장학 제도의 신설을 추가 고려해주길 바램. 외국인 유학생은 내국인에 비해 경제적 충당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현재 외국인 유학생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계 곤란 장학금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소수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보임.

학교 본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체험 활동 활성화와 관련해, 2024학년도 2학기에는 부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일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임. 다만, 과거에는 나전칠기, 티 클래스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 및 체험 활동을 꾸준히 운영해왔으며, 본교 위치(인사동, 안국역 인근)를 활용해 문화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수월한 편임.

현재 문화 체험 활동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내부 정비를 진행 중이며,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2024년 4월 학생 주도 교류 단체 ‘에스링크(S-LINK)’를 신설함. 에스링크는 한국인 및 외국인 학생이 함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외국인 신입생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상시로 외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임. 이를 통해 학생 수요에 기반한 문화체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확대할 예정임.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다양한 특강과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으며, 프로그램 확대를 준비 중임. 다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 현재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총학생회의 협력과 지원을 바랍.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외국인 유학생 대상 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카운슬링센터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 사이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된 홍보 자료를 제작 중이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OISS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메일 및 알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또한, 총학생회에서 제안한 영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신설 여부를 검토하고, OISS 홈페이지 내 상담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음.

결론: 학교 측은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1) 장학 예산 확대 시 가계 곤란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2) ‘에스링크(S-LINK)’ 단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험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3) 상담 프로그램은 다국어 홍보를 강화하고, 영어 집단 상담 신설 및 정보 접근성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임.